

정은경 “집단발생·설 연휴 재확산 위험”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감염 등 확진자 증가세”

주간 집단발생 21.8%→32.7%...일상공간 감염 여전

1월 이후 감염경로 불명 3300명...숨은 감염원 누적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7건...“지역사회 전파 대비”

방역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과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지역사회에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발 집단발생 등으로 감소하던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감염 확산 요인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북구 교회2 및 IM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203명이다. 광주 지역 확진자를 포함한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누적 384명이다.

육류가공업체, 향만·부두, 태권도장, 종교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집

단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는 지난해 4주차 21.8%에서 5주차 32.7%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방역 조치 연장 배경에 대해 정 본부장은 “집단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고, 감염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가 1월 이후에 3300명 수준으로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설 연휴 등으로 사람 간 접촉 등 지역 이동 등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23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가 소폭 증가하고,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22.8%로 지역 감염 위험



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유지 조치 등은 설 연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3월 개학 등을 위해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43건, 해외유입 46건 등 89건의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46건 중 7건에서 변이가 발견됐다. 7건은 영국 4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1건, 브라질 2건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34건이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수도 계속

증가 중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국 변이주는 71개국, 남아공 변이주는 31개국, 브라질 변이주는 13개국에서 발견됐다.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입국자 검역 강화, 유전자 분석, 변이 발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해당 국가발 입국 확진자·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며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 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술 취한 30대, 일요일에 주민센터 찾아와 흥기난동

전남 여수시의 주민센터를 찾아간 30대 주취자가 흥기를 휘둘러 직원이 다쳤다.

여수시에 따르면 1월31일 오후 2시40분께 김모(36)씨가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방위 통지서 문제로 전화를 했다”며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여성 직원은 “담당자가 아니고, 일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다시 전화해달라”고 안내했으나 김씨는 “절러 죽이겠다. 지금 당장 찾아간다”며 폭언과 함께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로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센터에 있던 직원들은 김씨가 “나를 무시한다”며 양말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음주 상태의 김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흥기를 손으로 잡으면서 상처를 입었고,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태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주민센터는 김씨가 기초수급자인 데다가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과거 수차례 술에 취해 주민센터를 찾아온 점 등을 경찰에 진술했다.

여수경찰서는 입원한 김씨와 센터직원 등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 자동차 부품업체 불...인명피해 없어

1일 오전 11시 24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내 설비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소각 설비 필드에서 불길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다문화가족 3명 사인, 일산화탄소 중독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어 숨진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일가족 3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1월31일 보도>

1일 뉴스1 취재결과, 원주경찰서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김모(9)양과 동생 김모(7)군, 외할머니 L(필리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사과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1차 부검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로 소견이 나왔다. 남매와 외할머니는 잠을 자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사해 의식을 잃었고 거센 불길에 신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남매의 어머니 L(32·필리핀)씨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셨고 1도 화상까지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남매의 아버지는 용접공이고 중국에 일을 하러 출국을 해 사고 당시 같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 넘어 트럭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검거

인천 강화도 한 도로에서 유타미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의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 도로에서 유타미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t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자택이 아닌 다른 주차장에 주차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의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 관내의 같은 차종의 차주들을 탐문해 A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쟁의권 확보’ 금호타이어 노조...5~6일 총파업 예고

노조 “설 전 임단협 일괄 타결 희망”...사측 압박



지난 1월28일 오후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 인수 이후 지난 2018년 체결한 노사 특별합

의에 따라 4년간 파업을 유보해 온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

상 미타결을 이유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5~6일 이틀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측과 교섭에 나서면서도 1차 쟁의대책위원회 회를 소집하고 총파업을 논의하는 등 사측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노조가 4년 만에 꺼내든 총파업 카드는 오는 3일 2차 쟁의대책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 28일 전체조합원

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재적조합원 72.3%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임단협을 타결 짓는다는 목표 아래 사측에 ‘임금 5.34% 인상’, ‘총고용 보장’, ‘중국 더블스타 인수 이후 지난 2018년 4월2일 노사 간 체결한 특별합의를 통해 2019년 반납한 상여금 200%에 대해 기준 재설정’, ‘통상임금(상여) 소송에 대해 과거분과 미래분 구분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 역시 금호타이어 전체 구성원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